

전 남

나주는 아직도 '돈먹는 가로등'

관내 1만2천여개 전기료만 매년 10억원
비용 70% 줄일 수 있는 절전형 교체 시급

나주시 관내 가로등과 보안등이 에너지 효율성이 떨어지면서 매년 수억 원대의 예산이 낭비되고 있어 시급히 절전형으로 교체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3일 나주시에 따르면 관내에 설치된 가로등과 보안등의 경우 1만2천286개에 달한다. 매월 보안등 1개당 전기사용료로 6천300원을 지급하고 있어, 매년 10억원을 웃도는 비용이 전기사용료로 들어가는 셈이다.
특히 나주시 관내에 설치된 대부분의 가로등과 보안등은 메탈램프나 나트륨램프 방식이어서 전기소모량이 많은 반면 전구의 수명이 짧다. 이에 따라 일반 절전형에

비해 유지·관리비용이 상대적으로 버거울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 지역민들은 "다른 지자체들은 이미 절전형으로 가로등을 교체, 수억원의 관리비용 절감에 나서고 있다"면서 "빠른 시일 내에 교체작업을 실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입을 모았다.
실제로 수년 전부터 대부분의 일선 자치단체가 가로등을 절전형으로 교체하고 있으며, 목포시의 경우 올해 1만2천여개의 보안등을 절전형으로 교체했다.
또 전북 익산시와 충남 아산시 등 전국 40여개 자치단체도 초고유가 시대 에너지 절감방안으로 가로등과 보안등을 절전형

으로 바꿨다.
절전형 가로등의 경우 일반적으로 CDM 램프나 LED 램프를 적용한 제품을 말한다. 기존 150w짜리 메탈 보안등을 절전형으로 교체했을 때 70w의 전력소비로도 동일한 밝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여기에다 CDM 램프 등 절전형은 자연광과 비슷한 빛을 발하는데, 전구 수명도 길어 관리비용을 70%까지 대폭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주시 관계자는 "그러나 초기 교체비용 부담이 적지않아 현재 정부가 예산이 부족한 자치단체에 대해 ESCO사업(에너지 절감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는 상태"라며 "지자체 일부 보안등을 CDM 방식으로 교체한 결과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언젠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주=최승렬기자 srchoi@



사진 공모전 대상 '백양사의 가을'
'장성관광 전국사진 공모전'에서 백양사의 가을 단풍을 항공 촬영한 변정희(광주광역시)씨의 작품 '백양사의 가을'이 영예의 대상을 차지했다. (장성군 제공)

함평 의료급여사업으로
진료비 4억2천만원 절감

함평군이 건전한 의료급여사업 추진으로 4억2천만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등 의료급여 재정의 안정화에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함평군은 "2009년도 의료급여 진료비 지급실적에 관한 보건복지가족부 통계자료에 의하면 전년도 대비 총 진료비 감소비를 전국 5위(전남 3위), 1인당 외래일수 감소비를 전국 2위(전남 1위), 1인당 진료비 증가율 전국 9위(전남 2위) 등을 기록했다"고 13일 밝혔다.
군은 그동안 의료급여관리사 2명을 채용하는 등 의료비 재정절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적절한 관리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무분별하게 의료급여를 이용하는 과다이용자 240명을 방문·전화 등을 통해 특별 관리했으며, 신규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급여 지원제도 및 의료급여 이용절차 안내 등에도 힘써왔다. 또 질병관리 필요성을 인식시켜 적절한 진료 및 합병증 예방에 노력해 예산절감을 이끌어냈다.
/함평=함평기자 hwang@

'화순농특산물유통' 설립 첫해 60억 매출

화순군 유통회사가 설립 첫 해만에 자립기반을 확충, 화순농업 발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있다.
13일 화순군에 따르면 지난 4월 출범한 화순농특산물유통(주)이 설립 첫해인 올해 60억원의 매출을 기록, 1억6천만원의 매출이익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11월 말까지 8개월간의 실적은 매출 42억원, 매출이익은 1억4천만원에 달한다. 부문별 매출액은 ▲축산물 16억원 ▲양서류 15억원 ▲청과류 4억6천만원 ▲쌀 3억7천만원 ▲한약초 2억7천만원 등이다.
특히 새송이버섯 30t, 1억원 어치의 저가에 걸쳐 홍콩으로 수출해 안정적인 해외

판매망을 확보한 것은 화순 농업인의 숙원 사업을 해결한 쾌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내년 1월부터 해외 12, 4천만 원 어치의 수출 물량을 확보해놓은 상태다.
또 내년부터 일본으로 토마토를 수출하기 위해 토마토연합회와 KTPP(한국토마토수출협회)과 MOU(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 점도 수출지향형 농업을 향한 첫 단추를 잘 꿰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내수에도 주력, 쌀 8만포(30억원 규모)를 수도권의 대규모 프랜차이즈와 계약을 성사시킨 데 이어 농협을 통해 꾸준히 물량을 공급하고 있다.
/화순=정문수기자 unsu@

고흥군 '농촌 거점면 개발사업' 유치 나서

고흥군이 농수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촌마을 거점면 종합개발사업' 유치를 돌입했다.
군이 대상지역으로 꼽는 과역면은 점암·남양·동강 등 고흥 북부권 6개 면의 교동·교육·경제·의료의 중심지다. 또 득량만과 여자만을 끼고 있어 꼬막과 바지락, 새고막·나치 등 수산자원이 풍부한 전남 최대의 수산물 집산지다.
이와 함께 지모·월인들레 등 난대성 생약재와 고흥유자, 셀레늄 마늘 등 난대성

농산물 집산지여서 사업대상지로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군은 거점면 사업지로서 선정되면 80여억 원을 들여 조가비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조가비 웰빙관 건립, 참살이 어울촌 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군은 사업 추진을 위해 조만간 전담기구를 설립하는 등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민간 중심으로 거점면 개발추진위원회를 구성, 주민 총회와 다른 지역 견학 등을 마쳤다.
/동부채재본부=주각중기자 gju@

광양 HRD센터 56명 전원 취업

전국 최초로 노·사·민·정이 함께 지역고용창출의 모델로 만든 '광양 HRD(Human Resource Development·인적자원개발)센터'가 인력양성의 산실로 거듭날 전망이다.
"모집에서 취업까지"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지난 6월 광양시 진월면에 개원한 HRD센터는 9월 조선·철강 등 3개월 과정을 마친 56명의 교육생에 대해 전원 취업을 알선했으며, 현재 2기생 55명을 교육중이다.
광양지역은 매년 1천여명의 조선 및 철강산업 인력이 요구되고 있으나, 맞춤형 인력은 300여명에 불과하다.
이성용 광양시장은 "광양 제철소 후판공장의 건설과 조선·철강 등 부자가 쇠도한 가운데 1만여명의 신규고용 창출이 예상된다"면서 "그러나 기능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관련기업들과 인력양성에 관한 다각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동부채재본부=박영진기자 pyj4079@



안전한 식품 건강한 사회
눈을 크게 뜨고 보면
안전한 밥상이 보인다

3 국가공인 인증마크
소비자들은 안전하면서도 건강에 좋은 농식품을 선택하고 싶어한다.
지나해 미국산 쇠고기파동은 이러한 소비자들의 농식품 안전성에 대한 관심을 더욱 촉발시켰다.
정부에서 안전한 농식품을 인증하는 제도는 어떤 것이 있을까?

◇우수 농산물관리(GAP·Good Agricultural Practices) 제도=농산물의 생산 단계부터 수확 후 포장단계까지 토양·수질 등의 농업환경과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중금속, 유해생물 등 110개 항목의 위해요소를 관리하는 선진제도로 지난 2006년 도입됐다.
농식품부는 지난 10월 인증에 필요한 절차와 조건을 완화해 농업인의 참여를 확대하고 소비자의 신뢰도 향상을 위한 안전성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GAP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친환경 인증=농약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는 것은 물론 안전하게 생산되는 농산물을 증명하는 인증제도이다.
농산물은 유기·무농약·저농약농산물 등 3단계로, 축산물은 유기 축산물과 무항생제 축산물로 구분한다.
오염되지 않은 토양에서 화학비료와 유기합성 농약을 일체 사용하지 않는 농산물이 기준에 적합할 경우 유기인증 실시하고 있다.

◇축산물 HACCP(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제도=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의 줄임말로 일명 '해설'이라 부른다.
최종제품을 검사해 불량제품의 시판을 제한하던 기존 위생관리 방식과는 달리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는 선진 위생관리 제도이다.
1959년 우주인에게 무균점 식품을 공급하기 위해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요청으로 도입됐다.
지난 2003년부터 의무적용된 도축장 145곳은 모두 HACCP 인증을 받았으며 10월말 현재 사료공장 83%, 가공 28.2%, 유통은 0.4%, 농조는 5% 인증을 받았다.
현재 농장·가공·판매단계는 자율적응용이나 생산농장에서 쓰는 소비자들의 고급육에 대한 대응에 따라 HACCP 인증추진에 적극 나서고 있다.

◇가공식품 KS 인증제도=국내에서 생산되는 전체 가공식품에 대한 일종의 국가 표준규격이다.
지난 2006년부터 소시지 등 일부 가공식품에서 전체 가공식품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농수산 128개 품목과 수산 24개 품목 등을 대상으로 표준화된 유통관리, 공정관리 등을 심사해 발급한다.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어린이 기호식품에 인증을 해주는 제도로 지난 5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HACCP 인증을 받고 제품에 자연적으로 유해하는 비타민, 무기질 함량이 낮아야 하며 포화지방, 나트륨 등 어린이 건강위려 성분함량이 낮아야 하고 타르색소 등을 사용하지 않아야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송기동기자 song@

공인중개사: 강영희 0621364-8700 H.P 010-4608-3700
(주)국민법률경매
지역별 부동산 가격 비교표 (전남, 전북, 전남, 전북 등)
지역별 부동산 가격 비교표 (전남, 전북, 전남, 전북 등)
지역별 부동산 가격 비교표 (전남, 전북, 전남, 전북 등)